제주방언의 지정사 부정 표현

문 순 덕*

차 례

1. 서 론
2. '아니다'의 의미 · 통사 특성
3. '아니다'의 담화 특성
4. 결 론

1. 서 론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며 담화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기도 한다. 더욱이 방언은 점점 그 형태가 사라져 가고 있어서 지정사 부정이 제주방언에서는 어떤 의미 · 통사 특성이 있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중세국어, 현대국어[1]에서는 이미 지정사 부정인 '아니다'의 의미 · 통사 특성에 대해서 많이 연구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제주방언 지정사 부정의 의미 · 통사 구조는 물론 담화 특성에 대해서 현대국어와 유사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부정문은 그에 대응되는 긍정문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심층구조에서 긍정문은 부정문이 되기 위해서 표면구조로 변형되는 과정에서 부정소

* 국어국문학과 강사

1) 본고에서 현대국어라는 용어는 표준어인 중앙어를 가리킨다.

가 삽입되어 만들어진다. 따라서 '이다'가 쓰인 긍정문도 부정소 '아니'가 삽입되어서 표면구조에서는 부정문이 되었다고 보며 부정소 '아니'와 '이다'가 통합되어서 부정어 '아니다'가 생성되었다는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하겠다.

지정사 부정에는 '아니다'와 '아녀'[2]가 있는데 '아녀'는 제주방언의 특징이기도 하다.

2. '아니다'의 의미 · 통사 특성

부정어 '아니다'에 대한 분석을 하기에 앞서 이에 대응되는 '이다'에 대해서 살펴 보겠다. '이다'는 '서술격조사, 지정사, 계사' 등으로 불리운다. **異稱**이 있다는 것은 여러 문법 기능을 갖고 있음을 뜻하는데 본고에서는 '이다'를 지정사라 칭하며 그 부정인 '아니다'를 지정사 부정이라고 부르겠다. '이다'를 서술격조사로 보는 입장에서 '이다'는 명사와 통합하므로 '이다'의 부정어인 '아니다'는 명사를 부정하는 '명사부정'(김동식 1980, 임홍빈 1973에서 명사문 부정이라 함)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것은 '아니다'의 선행 요소가 명사구이며 그 선행 요소를 부정하고 있어서이다. 그러나 '아니'가 '이다'와 통합되어서 부정서술어가 되기 때문에 '아니다'를 부정어로 다루어서 선행 명사를 부정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아니'는 부정 부사인 '아니'와 동일한 형태이며 그 통합 조건이 '이다'일 뿐이다. 부정소 '아니'는 단순부정, 의지부정, 객관부정, 거부 등의 의미가 있어서 '아니다'를 '아니 + 이다'로 분석할 수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2) 지정사 부정의 '아녀'는 종결어미 '-어'와 축약되어서 '아니+ 어>아녀'로 생성되었다. 실제 발화에서는 '아니다'보다 '아니여', '아녀'가 빈번하지만 논의 전개상 형태를 통일하기 위하여 '아니다'를 기본형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아니라', '아니'로도 발음되며 '아니다'는 잘 안쓰인다. 물론 표준어 교육을 덜 받은 계층에만 해당된다. 예를 들어 실제 발화시에 (1가)는 "사름이 아니여/아녀"로 발음된다.

'단순부정'을 '아니'의 기본 의미로 정하고자 한다.

국어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이다'의 의미를 소개하면 "'이다'는 사물을 지정하는 뜻을 나타내며 '아니다'는 '이다'를 부정하므로 선행요소의 사실을 부정한다."이며 신원재(1987: 56)는 "'아니다'는 '확신'이나 '재확인(강조)'의 의미로 사용되어 화자의 분명한 태도"를 나타낸다고 했다.

'이다'의 부정이 '아니다'가 되기 위해서는 선·후행적 환경인, 통사와 의미 특성이 유사해야 한다. 그러면 먼저 '아니다'의 통사 특성을 살펴 보면서 '이다'의 통사특성과 비교해 보고 대립짝이 성립됨을 논의해 보겠다.

(1) 가. 이 사름은 기잣 사름이 아니다.
나. 그건 거짓말이 아니우다.[3)]
다. 우리 어멍이 아니다.
라. 사람은 낙심홀 거 아니다.
마. 이것은 술도 아니고, 물도 아니다.
바. 이건 미신이 아니다.

(1)에서 '아니다'의 선행 조건을 보면 모두가 명사(유정명사, 무정명사, 의존명사 등)이다. 여기서 '아니다'는 선행 명사를 부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정소 '아니'와 통합하는 지정사 '이다'를 수식, 부정하며 '이다'가 부정이 되지만 결국은 '이다'의 지정 대상인 선행 요소를 부정하게 된다. (1나)에서 긍정의 "거짓말이다"에서 '이다'의 지정 대상은 '거짓말'이며 그 부정인 "거짓말이 아니다"에서 부정 대상 역시 '거짓말'이 되고 있다.

(1)을 긍정문으로 만들어서 통사 특성의 유사성을 알아 보고자 한다.

(1') 가. 그 사름은 기잣 사름이다.
나. 그것은 거짓말이다.

3) '아니+우+다'에서 형태소 '-우-'는 제주방언의 상대존대 선어말어미이며 선행 어간이 개음절이면 '-우-'가, 폐음절이면 '-수-'가 통합된다. (정승철 1994, 홍종림 1993, 현평효 1985 참조)

다. 우리 어멍이다.
라. 사람은 낙심홀 것이다.
마. 이것은 술이고, 물이다.
바. 이건 미신이다.

(1')에서 서술어는 '명사+이다'인데 '이다'는 선행 명사를 단정, 긍정하고 '아니다'처럼 선행 환경이 명사라는 통사 특성이 같고 의미는 '긍정 : 부정'이다. 긍정문인 경우, '이다'는 바로 명사와 통합되고 부정문인 경우, 명사와 '아니다' 사이에 보격조사 '-이'가 개입된다. 이것은 장형부정문을 만들 때 출현하는 보문소 '-지'와 문법적인 기능이 같다고 볼 수 있다. 동사어간과 통합된 '-지'는 탈락되지 않는데 여기서 [-동작]의 의미자질을 가진 명사에는 '(하)지'가 결합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장형부정문인 경우 보문소 '-지'가 쓰이기 때문에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즉 부정 서술어 '아니다'가 오면 격조사 '-이'가 선택되므로 동사에는 '-지'가, 명사에는 '-이'가 선택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 가. 그건 거짓말 아니다.
나. 우리 어멍 아니다.

(2)처럼 부정문일 때는 보격조사 '-이'가 수의적으로 탈락하기도 한다. 이것은 장형부정문에서 보문소 '-지'의 수의적 탈락과도 유사하다. 부정서술어가 쓰일 때는 통사 특성상 이와 共起하는 격조사, 보문소가 통합됨을 알 수 있다.

(3) 玉體創瘢이 ᄒᆞᆫ 두 곧 아니시니(용가, 114)

(3)에서 보듯이 중세국어에서도 '아니다' 앞에서 보격조사 '-이'가 생략되었으며 '-이'의 생략은 중세국어에서부터 보편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다'와 '아니다'는 평서문과 의문문에서는 성립하는데 명령문과 청

유문에서는 성립하지 못함을 보겠다.

(4) 가. *그것은 거짓말이{어라/ 아니어라.}
나. *우리 어멍이{게/ 아니게}
다. 그는 사람이{다/ 아니다}
라. 이건 미신이{냐/ 아니냐?}

(4)에서 (가, 나)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명령문과 청유문은 동작동사가 와야 하는데 '이다'와 '아니다'의 선행환경이 [-동작]의 의미자질을 갖기 때문에 평서문과 의문문에서만 성립함을 알 수 있다. '이다'와 '아니다'의 통사 특성을 좀더 살펴보기 위해서 각각을 부정문으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앞에 나온 보기를 다시 인용해서 '아니다'와 '이다'의 장형부정문을 만들어 보겠다.

(5) 가. ?기잣 사름이 아니지 아니하다/*못하다.
나.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지 아니하다/*못하다.
다. ?우리 어멍이 아니지 아니하다/*못하다

(6) 가. ?그것은 거짓말이지 아니하다/*못하다.
나. ?이건 미신이지 아니하다/*못하다.

(5, 6)에서 부정서술어 '못하다'는 비문이 되며 '아니하다'는 문장이 성립하긴 하지만 실제 잘 쓰이지는 않는다. 부정소 '아니'는 선·후행 요소의 선택에 제약이 거의 없는데 비해서 부정소 '못'은 선행 요소가 [+동작]의 의미 자질이 있어야 하므로 지정사와 共起하지 못하는 통사적인 제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5)는 '아니다'의 장형부정문인데 이중부정문처럼 쓰이고 있지만 긍정의 '이다'로 치환해서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6)에서 '-지 아니하다' 대신에 '아니다'를 대입하면 문맥이 자연스러우며 지정사 '이다'를 장형

부정문으로 만들어 본 것이다. 따라서 '이다'의 장형부정문으로 처리하여 여기서도 단·장형부정문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지만(임홍빈 1987) 실재 발화시에 (5, 6)은 발화되지 않으며 지정사 부정에서 단·장형부정문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예문 (1)과 같이 부정소 '아니'가 '이다' 앞에 놓이므로 단형부정문으로 처리해서 지정사 부정은 단형부정만 성립하고 장형부정문은 성립하지 않다는 견해가 보편적이다. 김동식(1980: 84)도 "'아니'는 원래 문장에서 동사 역할을 하고 있으며 명사문에서는 '이-'가 나중에 도입되는 것이므로 단·장형 부정문의 구별은 무의미하다"고 하였다.

'이다'는 문법적인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말다, 없다, 모르다' 등의 부정어처럼 고유 의미는 없지만 선행 명사를 긍정, 단정해 주는 서술어의 기능을 하며 부정어인 '아니다'도 역시 선행 명사를 부정, 단정하며 화자의 분명한 태도(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다'는 선행 명사와 통합해야만 서술어의 기능을 나타내는데 '아니다'는 그 자체로서 서술어의 기능을 나타낸다. 이것은 부정소 '아니'와 '이다'로 분석할 수 있음을 뜻하며 '아니'는 후행 동사와 통합할 수 있다는 통사 특성이 드러나며 부정 부사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이다'는 자립성이 없는 의존형태소여서 선행 요소와의 통합이 필수이므로 '아니'가 그 선행 요소가 된 것이다. 그래서 '아니다'는 자립성이 있고 서술어로 기능하며 '이다'의 부정어로 쓰이고 있다. 따라서 '이다'의 대립짝으로 '아니다'를 설정할 수 있다.

다음은 연결어미와 함께 사용된 문장을 살펴 보고자 한다.

(7) 가. 그는 사위가 아니라 아덜이다.
나. 난 셍인(生人)이 아니고 귀신이노라.
다. 느 아니민 나 일 안허켜.[4]

4) 홍종림(1993: 21~24)의 설명을 보면 "서술어가 명사나 상태동사일 때에는 주어의 인칭에 관계없이 [-자의성]밖에 취할 수 없다. 서술어가 동작동사일

(7가)는 '사위'를 부정하고 있다. 즉 '사위'라는 존재를 부정하며 그가 아들임을 강조하고 있다. (7나)는 '생인'을 부정하고 있다. 즉 '나는 살아 있는 사람이 아니고 죽은 귀신이다'라는 뜻이다. (7다)에서 '아니민'은 보어가 생략되었는데 생략된 내용을 지정해 주고 있다. 따라서 '~이 아니면'으로 풀이된다. "네가 아니면 내가 왜 일을 하겠느냐? 즉 너 때문에 일을 한다."라는 뜻으로 부정어가 쓰였으나 실제 의미는 긍정을 나타내고 있다.

(7)에서 '아니 + 라/고/민(면)'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 '아니'와 연결어미가 통합되는 것으로 보아서 '아니 + 이다'로 형태를 분석할 수 있는 타당성을 얻은 셈이다. (7)에서 '아니다'는 선행절을 부정하며 후행절을 긍정, 단정하고 있다. 여기서도 '아니다'의 선행 요소는 '명사'임을 알 수 있다.

(8) 아닌게 아니라, 밤중의 질 일런 왓수다.

(8)은 '밤중에 길을 잃어서 왔습니다'라는 뜻으로 "어떻게 여기에 왔느냐?, 길을 잘못 들지 않았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의 응답일 수 있다. 이 문장은 '아니다'의 중복 표현으로 긍정의 의미인 '그렇다' 라는 뜻이며 후행절의 내용을 인정하고 있다. '아닌게 아니라'는 "앞에 말한 사실에 대하여 그것이 정확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과연 그렇다', '사실은' 이라는 긍정"의 뜻을 나타낸다.

'이다'의 선행 요소는 명사구이므로 그 부정어인 '아니다'의 선행 요소도 역시 명사구임을 알 수 있다. 현대국어에서 부정소는 피수식어 앞에

때는 주어가 2, 3인칭이면 [-자의성]을 취하는데 주어가 1인칭이면 화자의 의도나 추측을 뜻한다. 이렇게 화자의 의도, 추측을 나타내는 것은 서술어가 화자의 [±자의성] 여부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자의성'이란 화자의 자의, 의지가 개입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ㅋ-'가 의도, 추측일 때는 현대국어의 '-겠-'과 문법 기능이 같다.(현평효 1985 참조)

놓이므로 '아니 + 이다'가 되어야만 조건이 성립되며 이를 분석하지 않고 '아니다'를 한 단어로 본다면 "그것은 아니 거짓말이다."처럼 비문이 된다. '하다' 동사인 '걱정하다'가 부정문이 되기 위해서는 부정소 '아니'가 '걱정'과 '하다' 사이에 개입되어서 동사 '하다'를 수식, 부정하는 이치와 같다(걱정 아니 하다). 지정사 '이다'도 선행 요소와 통합해서 서술어가 되지만 부정문이 되기 위해서는 선행 요소와 '이다'가 분리되면 그 사이에 '아니'가 개입되어서 '이다'를 수식, 부정하게 된다. 따라서 '아니다'는 '아니 + 이다'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때의 '아니'는 단 · 장형부정문에 쓰이는 부정소 '아니'와 동일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즉 부정서술어 '아니하다', '못하다'는 '부정소 + 하다'로 분석할 수 있는데 이때의 '하다'와 '아니다'에서의 '이다'는 문법 기능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부정소와 통합되어서 부정어가 되며 선행 요소를 부정하고 있으며 부정서술어로 기능할 때 보격조사가 선택된다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부정소 '아니'는 '단순부정, 의지부정' 등의 기본의미를 갖고 있는데 지정사 부정에 쓰인 '아니'도 '단순부정'의 기본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부정소 '아니'와 동일한 형태임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된다.

3. '아니다'의 담화 특성

다음은 '아니다'의 담화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9) 가. 이 사롬은 기잣 사롬이 아니다.
나. 그건 거짓말이 아니우다.
다. 우리 어멍이 아니다.
라. 사람은 낙심홀 거 아니다.
마. 이것은 술도 아니고, 물도 아니다.
바. 이건 미신이 아니다.

(9가)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여서 특별한 사람임을 함축하고 있다. '그 사람의 언행, 업적' 등 그에 관한 정보를 얻어서 내리는 판단이어서 화자의 주관적인 의지가 담겨 있다. 또 하나는 '그 사람은 어떠니?'라고 질문했을 때의 대답일 수도 있어서 기잣 사람(보통사람)임을 부정하고 있다. 여기서 '아니'가 단순부정이므로 주어진 명제인 선행구를 단순히 부정하고 있다. (9나)는 '누군가 거짓말을 한다'는 전제에 대한 대답이다. '거짓말'을 부정하니까 '그것은 사실(진실)이다'로 해석되며 '아니'는 역시 단순부정으로 쓰이고 있다. (9다)는 '이 분은 우리 어머니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우리 어머니이다'로 '우리 어멍'을 부정하고 있으며 화자가 여러 상황을 살펴본 결과 자기 어머니의 특징이 없어서 하는 말이다. 역시 화자(주어)의 확신이 있어서 명제를 단정하고 있다. 주어가 1인칭이어서 화자의 의지가 개입되었지만 내용을 부정하고 있다. (9라)는 '누군가 낙담(체념)하고 있을 때' 위로하는 말일 수 있다. 여기서 '것'이 '낙심하는' 대상이므로 '낙심하다'를 부정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낙담하지 말고 용기를 갖자'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9마)는 보조사 '도' 대신 보격조사 '-이'를 대입해도 문장이 성립한다. 즉 '술이 아니고, 물이 아니고 다른 것이다'라는 뜻이다. '이것은 술이고, 물이냐'라고 질문했을 때의 응답이며 그 대상인 '술'과 '물'을 부정하고 있다. 물질명사인 '술, 물'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9바)는 어떤 행동이나 상황을 보고 '이건 미신 행위이다'라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반응이다. 역시 화자의 의지가 내포되어 있으며 '미신'을 부정하고 있다. 즉 화자가 본 대상과 관련된 사항들을 판단한 결과의 답변이다. 화자의 가치 판단에 대한 단순부정으로도 볼 수 있다. 다시 설명하자면 (9가)는 '보통사람'으로 존재하지 않고 '특별한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존재부정으로 볼 수 있으며 (9나)는 관념적이긴 하지만 '거짓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존재부정이 가능하고 (9다)는 '이 사람은 우리 어머니가 아니다.'라는 '어머니'라는 대상의 존재를 부정하며 '다른 사람이 우리 어머니이다.' 라는 존재 대상의 이동으로 볼 수 있다. (9라)는 마음 속에 체념의 감정을 갖지 말자,

마음 속에 존재하게 하지 말자는 존재부정이 가능하다. (9마)는 '술, 물'이라는 대상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 (9바)는 '미신'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와 심리적인 상태로 존재하는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다.

(9)에서 지정사 '이다'는 선행 명사를 지정하므로 그 부정인 '아니다'는 지정에 대한 부정이 된다. '이다'와 '아니다'는 화자의 의사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발화되기 때문에 '아니다'는 의지부정으로 보이지만 단순히 주어진 명제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단순부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처럼 '아니다'는 실제 발화된 명제의 존재를 부정하며 화자의 주·객관적인 의지, 확신에 대한 단정적인 문장이 되며 긍정의 선행구를 부정하고 있다. 물론 여기서 '존재'라는 것은 '없다'인 존재부정과는 좀 다르다. 지정사 부정에서 '아니다'는 화자의 대상에 대한 확신과 같은 분명한 태도를 나타내서 청자의 반론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 따라서 화자가 갖고 있는 견해가 발화되길 바란다고 볼 수 있다.

4. 결 론

이상에서 지정사 부정인 '아니다'의 의미·통사·담화 특성 등을 살펴보았다. 먼저 '아니다'를 형태 분석한 결과 '아니 + 이다>아니다'가 됨을 보았다. 지정사인 '이다'를 부정하는 '아니'는 기본 부정소이며 '아니다'는 선행 명사를 부정함을 보았다. 지정사 부정을 단·장형부정문으로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장형부정문에서는 보문소 '-지'의 선택이 필수적인 것처럼 '아니다'도 보격조사 '-이'의 선택이 필수적인 통사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다'는 선행 명사와 통합해야만 서술어가 되는데 '아니다'는 독립성이 있으며 서술어로 기능함을 보았다. 이것은 부정소 '아니'가 '이다'와

분리됨을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부정서술어 '아니하다, 못하다'와 더불어서 '아니다'는 부정어로 기능함을 알 수 있다. 부정소 '아니, 못'이 '하다'와 통합해서 부정서술어가 되듯이 '아니다'도 마찬가지여서 '하다'와 '이다'는 문법적인 기능이 같다고 볼 수 있으며 '아니'의 기본의미는 '단순부정'인데 담화 상황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해석된다.

긍정의 '이다'가 화자의 확신(의지), 강조를 의미한다고 본다면 '아니다'는 부정을 뜻하는 화자의 확신이나 강조의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이다'는 주어진 명제를 지정해 주는 역할을 하며 '아니다'는 주어진 명제를 지정하는 것을 부정한다.

지정사 부정인 '아니다'는 현대국어와 제주방언 모두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중세국어에서부터 나타난 문형이어서 별로 다를 게 없다. '아녀', '아니여' 형은 중세국어에서부터 있어온 형태이며 제주방언에 그 형태가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방언은 한국어의 하위 언어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고유성은 점점 사라지고 보편성(현대국어화)에 동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정사 부정인 '아니다'의 제 특성을 통해서 제주방언도 한국어의 한 하위 언어이며 이질적인 요소보다는 동질적인 요소가 더 많음을 보았다. 따라서 각 방언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해서 중세국어의 모습과 현대국어의 특성을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자료— 용비어천가(1447)

김동식(1980), 현대국어 부정법의 연구, 국어연구 42, 국어연구회.
———(1990), "부정법",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김영희(1884), "하다; 그 대동사설의 허실", 배달말 9, 배달말학회.
남풍현(1976), "국어 부정법의 발달", 문법연구 3, 문법연구회.

박정규(1995), 국어 부정문의 의미와 통사 연구, 서강대박사.
서정수(1974), "국어의 부정법 연구에 관하여 -변형 생성 문법적 분석연구를 중심으로", 문법연구 1, 문법연구회.
———(1994), 국어문법, 뿌리깊은나무.
송석중(1993), 한국어 문법의 새 조명 - 통사 구조와 의미 해석-, 지식산업사.
신원재(1987), "현대국어 부정표현에 관한 연구", 서울대 교육대학원석사.
안병희(1959), "중기어의 부정어「아니」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20, 국어국문학회.
엄정호(1989), "소위 지정사 구문의 통사 구조", 국어학 18, 국어학회.
유동준(1983), "국어 부정문의 화용론", 연세어문학 14·15집.
임홍빈(1973), "부정의 양상", 논문집5, 서울대 교양과정부.
———(1987), "국어 부정문의 통사와 의미", 국어생활 10, 국어연구소.
정승철(1994), 제주도방언의 통시음운론, 서울대박사논문.
최현배(1986), 우리말본, 정음사.
한 길(1977), "한국어 부정어에 대한 연구 - '아니다, 없다, 말다'의 해체 분석을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
한정일(1987), "부정문의 화용론", 연세대 석사.
홍종림(1993), 제주방언의 양태와 상, 한신문화사.
황병순(1980), "국어 부정법의 통시적 고찰", 어문학 40.
현평효(1985), 제주방언연구, 이우출판사.
Givon. Talmy(1979), 「문법이해론」, 이기동역(1981), 범한서적주식회사.
John. R. Searle(1969), Speech Acts, (이권원역(1987), 「언화행위」, 한신문화사).
Stephen C. Levinson, Pragmatics, (이익환· 권경원 역(1992), 「화용론」, 한신문화사)